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TEL: 063-859-2400 ~ 2410 FAX: 063-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민장 광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3월 8일 화요일 (음 1월 30일) 제151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정동영 “다시 한번 기회 달라”

총선 공식 출정 깃발
전주 북서진정책 비전 제시
전북 정치자존심 등 강조
지도 하락세 국민의당
위기탈출 행보 가속화될 듯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병)가 7일 제20대 총선 공식 출정을 알렸다.

정 후보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주에서 다시 출마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고향에서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하다. 그리고 죄송하다. 죄송할 따름이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정 후보는 “앞으로 할 일의 첫 번째는 전북과 전주가 저에게 베풀어 준 무한한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이라며 “이것이 다시 전주에 출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전주를 동양의 밀라노로 만들자는 것과 전주의 북서진정책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 후보는 “밀라노 프로젝트는 신도시산언으로 볼 수 있고 전주의 100년을 준비하는 계획이다”며 “한옥마을, 구도심 에코시티, 종합경기장, 덕진공원 송천동 농수산물터 등을 재창조해 창의적이고 활력넘치는 도시로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어 “북서진 정책은 전주의 지속 성장을 위한 계획”이라며 “봉동삼례와 합하고 전주익산군산을 광역전철망으로 묶어 과감한 변화를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전주의 북쪽은 35사단이 전으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당선되는 즉시 전주완주 통합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진정으로 전북의 미래를 위하는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강한 전북 정치팀을 만들겠다고 그 팀장 역할을 맡겠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정 후보가 이번 출정의 깃발을 올린 것을 두고 지지기반을 확실히 다져 유권자를 결집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했다.

또한 국민의당 출마를 통해 전북 역할론이라는 선명성을 강조 국민의당 주도권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했다.

특히 ‘전북정치의 자존심’ 전북경제의 도약 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국민의당 지지율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는 정가의 관측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조사된 여론조사를 들여다보면 국민의당 성적표는 좋지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2016년 3월 1주차(2월 29일, 3월 2~4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0.8%p 하락한 11.8%로 지난주의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2주 만에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더불어민주당 28.0% 대비 한참 뒤쳐졌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지 못하면 국민의당으로선 필패인 셈이다.

이러한 약세는 전북 역시 포함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정가 한 관계자는 “정 후보가 전북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을 단숨에 끌어올릴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일각에서 정 후보를 힘있는 정치인으로 구분짓



올레길에서 즐기는 낮잠

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 올레 7코스에서 한 부부 올레꾼이 해안가에 있는 돌로 만든 의자에 누워 싱그러운 해풍을 맞으며 따스한 봄날 오수를 즐기고 있다.

는 소위 상징적 존재인지라 위기에 빠진 국민의당을 살리고 잠재기에 빠진 전북의 새틀짜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

이라며 “이번 출정이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전망했다. /신광영 기자

정부, 오늘 독자 대북제재안 발표

북들은 선박 입항 금지 등 예상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리스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에 관여한 개인

16명과 단체 12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방과학원과 청천강해운, 군수공업부, 89호실 등의 단체와 리만진 군수공업부장,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 최춘식 제2연과화학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유렵연합(BU) 각료이사회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 국적자 16명과 12개 기업을 대북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밖에도 남북한과 러시아 3자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등을 철도를 이용해 북한 나진항까지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선박에 옮겨 실어 국내로 들어오는 사업인데, 이는 북한 기항 제국 선박의 입항 금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5·24 대북 제재의 예외로 인정됐지만, 정부는 중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주 기자

2016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

3. 26 (토) 오후 3시부터
전주 중부비전센터 5F 비전홀

본시는 전국의 많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함양과 건전한 청소년문화 형성을 위해 2016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를 열고자 합니다.

- ▲주최: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 ▲공동주관: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매일신문
- ▲후원: 전주시, 동이인재대학교
-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063-288-9700)

전주매일

FIFA U-20 월드컵 조직위 창립총회

전주시, 성공 개최 준비작업 더욱 박차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가 내년 열리는 FIFA U-20월드컵의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13면>

가칭 ‘제24회 2017 FIFA U-20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 제정과 위원 및 임원 선임, 대회 개최 계획 보고 등을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한축구협회와 개최도시 단체인, 재계와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48명이 조직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또 상근부위원장은 광역진 축구협회 부회장, 사무총장의 경우 김동대 축구협회 부회장이 맡아 실무를 이끌어가기로 했다.

조직위는 창립총회에서 단계별 조직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승인했다.

전주시는 이번 창립총회를 계기로 조직위원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체계를 유지

해 나가는 동시에 독자적인 준비 작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비롯해 행사 전반을 전라전주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일컫는 문화월드컵으로 개최하기 위한 문화월드컵 특화 및 개최효과 극대화 방안 수립 연구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노후화된 경기장 시설 정비에 대한 예산 확보 활동도 다각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전주시 U-20월드컵추진단 관계자는 “U-20 월드컵을 전라전주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일컫는 문화월드컵으로 개최해 대회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라도나와 피구, 메시 등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배출된 FIFA U-20 월드컵은 성인 월드컵 다음으로 규모가 큰 FIFA 주관대회로, 내년 5월 20일부터 6월 11일부터 6개 대륙 24개국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다. /김영재 기자

KTX 혁신역 설립추진위원회

도민의 힘으로! 전북의 동력을 만들자!

KTX 혁신역 설립 추진을 위한

제 2 회 희망 콘서트

2016. 3월 10일(목) 저녁 7시 30분

전북대삼성문화회관

홍진영, 성진우, 지원이, 선경, 유미, 오현

MC 김현수, 이희정

공동주최: KTX 혁신역 설립추진위원회 / (사)전라북도신체장애인협회

후원: 전주매일

후원계좌: 농협 351-0748-9945-63

기획: 바운스기획

협찬: (유)한강건설, (유)하늘케어, 법무법인 백제

티켓문의: 255.0049